



2021년 4월 4일(제1029호) 주님 부활 대축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빈 무덤에서 희망을 1”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고 빈 무덤만 전해줍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신이 사라졌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시신까지 사라졌으니 절망에 절망을 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빈 무덤에 있는 느낌은 아닐는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절망하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느끼는 부활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훗날의 제자들보다는 빈 무덤에서 허탈해하는 오늘의 제자들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믿음과 기쁨을 복돋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희망을 가집니다. 저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방법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를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야간에 피아를 식별하기 위해서 암구호를 사용합니다. 암구호를 숙지해야만 야군임을 전달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그분의 제자다운 마음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제자다운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빈 무덤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압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빈 무덤에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그분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병국(요한보스코) 신부  
인천해군(인방시) 성당 주임

### 파스카 성야

- |         |  |
|---------|--|
| 제 1 특 시 | 창세 1,1-2,2   |
| 회 답 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 제 2 특 시 | 창세 22,1-18   |
| 회 답 송   |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 제 3 특 시 | 탈출 14,15-15,1ㄱ   |
| 회 답 송   |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 제 4 특 시 | 이사 54,5-14   |
| 회 답 송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 제 5 특 시 | 이사 55,1-11   |
| 회 답 송   |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제 6 특 시 | 바룩 3,9-15.32-4,4   |
| 회 답 송   |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제 7 특 시 | 에제 36,16-17 ㄱ.18-28  |
| 회 답 송   |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 시 기     | 로마 6,3-11  |
| 회 답 송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 특 음     | 마르 16,1-7  |
| 영 성 채 송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br>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여섯 번째 시한**

이튿날 밤 1시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중국인 안내자들을 작별한 후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에 의주 읍내가 멀리 보였습니다. 과연 무사히 통과할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좋아지게 하였습니다. 특히, 나무할 칼을 잊어버리고 변분에 놓고 왔기 때문에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예로부터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는 자는 아무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성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성문에는 군인이 지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통행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변문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사람들 틈에 끼어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군인이 저에게 통행증을 요구하려는 차례가 되자 세관원들한테로 갔습니다. 저는 요행히 몸집이 큰 소들의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관에서는 여행자들에게 한 명씩 세관장 앞으로 나아가 성명을 대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어두웠으므로 불을 켜놓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관장 외에도 다른 세관원 한 사람이 높은 곳에 서서, 아무도 달아나지 못하도록 두루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에서는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기에 저는 슬그머니 그들 뒤를 따라나섰습니다. 그런데 저의 등뒤에서 세관원이 저를 부르며 통행증도 내지 않고 가느냐고 호령하였습니다. 그가 연거푸 저를 부르기에 저는 통행증을 벌써 내주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저를 뒤쫓아오는 줄로 믿고 달아나 성밖의 변두리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저를 맞아줄 집이 한 채도 없으므로 밤새도록 대략 백 리 가량을 걸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 너무나 추워서 몸을 녹이려고 어떤 조그마한 주막에 들어갔더니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과 의복을 살펴보고, 또 말소리를 들어 보고는 외국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제 머리를 살펴보고 제가 신은 중국 버선을 검사하였습니다. 한 사람만 저를 동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반대하여 제가 어디로 가든지 잡힐 것이라고 떠벌렸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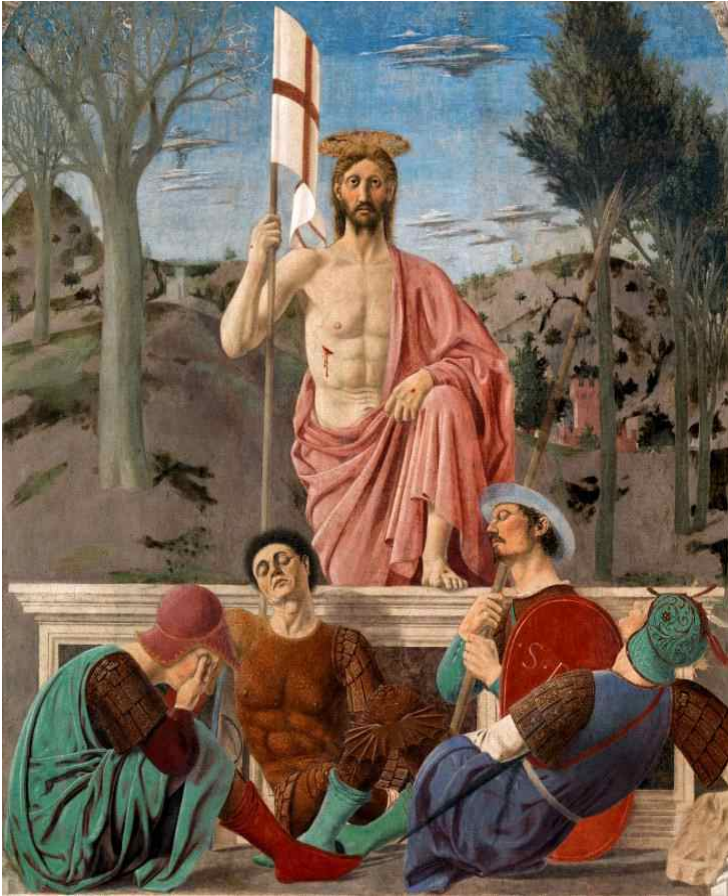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주님 부활 대축일**

<p><b>제 1 독 시</b> <b>회 달 송</b> <b>제 2 독 시</b> <b>부 속 기</b></p>	<p>사도 10,34-37-43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콜로 3,1-4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p>	<p>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왔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p>
<p><b>복 음 환 호 송</b></p>	<p>◎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p>	
<p><b>복 음 영 성 제 송</b></p>	<p>요한 20,1-9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p>	

상화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1460년 작  
225 x 200cm, 프레스코화 / 신세콜크로 미술관, 이탈리아

이는 예수님을 통해, 왼쪽 배경 속의 메마르고 말라버린 나무(죽음)와 오른쪽의 잎이 무성한 나무(생명)를 예수님이 연결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화가는 자신을 잠든 병사로 그려 넣었지만 결국은 천상과 지상을, 죽음과 생명을, 그리고 나아가 현실과 그림 속의 또 다른 현실을 매개하는 인물로 자신을 내세웠으며, 이는 이 그림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인 셈이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는 모두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쪽에서 있을 것 인지는 우리의 선택이 되겠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흥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부활 다복일: 비성대 농희표 신부

◆ 교구장 동정

- 군중교구 제4대 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 서품 및 착좌식  
때·곳: 4월 9일(금) 14:00,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